

한국과 미국 대학생의 시간전망에 대한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y on the Time Perspective
between Korean and American College Students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김외숙**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Professor : Kim, Oi-Sook

〈Abstract〉

This paper compares the time perspective between Korean and American college students and examines the difference of it according to gender and social status of them. The subject of this study were 381 Korean students and 385 American counterparts. The data were collected by survey with questionnaires and analyzed by SPSS program for the frequency, percentil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one-way ANOVA and Duncan test. The results indicate that American students have more long-term personal direction than Korean counterparts and the effects of gender and social status are different in Korea and America. Korean students showed no difference according to these two variables but female America students indicate more long-term personal direction than male students and the time perspective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social status in America.

△주요어(Key Words) : 시간전망(time perspective), 개인의 장기지향성(Long-term personal direction), 비교연구(Comparative study) 한국 대학생(Korean college student), 미국 대학생(American college student),

I. 서 론

시간은 인간 경험의 토대이면서 또한 가장 불가사의한 것이다. 시간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그것이 전적으로 퍼-악하기 어려운 무형의 관념물이기 때문이다. 물리적인 크기나 길이가 있는 것도 아니요, 열이 나거나 차가운 것도 아니다. 우리는 단지 막연한 느낌과 의식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Collett, 1993). 오늘날 우리들은 시간이 지속적으로 흐른다는 사실을 시계라는 기구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측정하지만, 개인 또는 문화에 따라 시간에 대한 개념은 상당히 다르다.

인간의 삶은 시간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시간의 틀에는 현재만이 아닌 과거와 미래라는 차원이 포함된다. 현재는 과

거의 축적이고 미래는 현재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에서 미래를 파악하는 동시에 과거로 환원될 수 있는 체험 내용을 가지는 시간구조로 정의되는 시간전망(Frank, 1939)은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다. 인간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예측하는 것은 실제로는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지각상태 등이 상호작용한 결과(정종민, 1987)라고 볼 때 한 개인이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원을 사용하는 행동은 그가 가지는 시간전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시간전망의 차이가 동기(Nuttin, 1964; Borsato, 2001), 성취(Wolf & Savickas, 1985; Marko & Savickas, 1998), 계획(Ouellette, 1987; Marko & Savickas, 1998), 유능감(Dreman et al., 1989), 식품사용패턴(Shifflett, 1987), 교육투자(Peetsma, 2000) 등 다양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힌 실증연구들을 통해서도 시간전망이 가족자원관리행동이나 소비자행동과 깊게 관련되는 점을 알 수 있다.

* 이 논문은 2001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주 저자: 김외숙(E-mail: kimos@knou.ac.kr)

한편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다양한 사회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인간행동을 연구해온 학자들은 오랫동안 행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필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시간에 대한 개념은 인간행동의 기저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점에서 다른 사회와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탐구할 필요성이 큰 주제라고 본다. 다양한 사회의 문화현상을 연구한 저서에서 시간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크게 다루어지고 있는 점(Collectt, 1997; Levin, 1997; Witrow, 1988)도 이러한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구사회에서 미국인은 다른 유럽인에 비하여 시간전망이 짧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한국인의 미래에 대한 시간성향은 미국인보다도 더 짧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남 못지 않은 긴 역사를 지녔으면서도 근세에 들어 경험한 급변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이나미, 1994).

그러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서양적 관점을 비판하며 동양적 관점을 추가하여 문화를 비교검토하기 위하여 중국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개발된 장기/단기 지향성의 개념은 한국과 같은 동양은 장기지향적인 문화를 가진 것으로, 미국은 단기지향적 문화를 가진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Chinese Culture Connection, 1987).

한편 미국과 인도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문화적 배경이 시간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비교연구들(Meade, 1971, 1972; Mehta et al., 1972; Heckel & Rajagopal, 1975)에서 미국의 대학생들이 인도 대학생들보다 더 장기적인 미래시간전망을 보이는 결과는 윤회설이 지배적인 인도인들이 삶에 대해 보다 느긋한 태도를 보이므로 개인의 시간전망이 미국보다 더 폭이 넓을 것이라는 가정이 지지되지 않고 성취 동기가 상대적으로 낮은 문화권보다는 높은 문화권에서 좀 더 장기적인 미래시간전망을 보인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 국민의 시간전망은 다른 문화와 비교할 때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외국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서 인간행동의 전체 속에서 시간전망의 양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국내에서는 주로 발달심리학, 교육학, 또는 행정학에서 다루어져 왔으며(김경희, 1982; 김봉식, 1979; 김성애, 1982; 엄판도, 1987; 임성문, 1979; 임승열, 1984; 정종민, 1987), 가족자원관리학에서는 1968년 최초로 시간사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온 이후 시간을 주제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김외숙·이기춘, 1988) 시간전망과 일부 관련된 연구로는 주부를 대상으로 시간성향에 따른 시간관리행동과 가정생활만족도를 밝힌 연구(이나미, 1994)가 있을 뿐이며, 시간전망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시간전망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문화적 차이와 함께 동일한 문화 속에서도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하기 위하여 성별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시간전망의 차이도 밝히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시간전망의 개념

시간전망(time perspective)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이론적 고찰을 시작한 학자는 Frank(1939)로서 그는 시간전망을 “현재에서 미래를 파악하는 동시에 과거로 환원될 수 있는 체험내용이 가지는 시간구조”라고 정의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개인 및 문화가 가지는 시간전망에 의해 형성된다. 특히 시간에 관하여 문화적으로 결정된 태도는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측면이다. 아동은 부모에 의해 교육받을 때부터 그가 속해 있는 문화권의 규범에 적응하는 것을 학습함으로써 일정한 가치를 수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가치나 행동들은 아동에게 어떤 시간전망을 갖게 한다. 이 때 얻어진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하여 현재에 영향을 주는데 과거전망과 미래전망은 현재 행동의 양면으로서, 과거전망은 유기체의 지속적인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행동의 방향 및 패턴을 통제하고 현재는 이러한 과거전망을 통제하며, 미래전망은 과거나 현재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고 한다.

생활공간차원으로서의 시간전망에 관심을 둔 Lewin(1942)은 시간전망이란 “주어진 시간에 존재하는 개인의 심리적 과거와 미래에 대한 관점의 종합”을 말하며 이는 생활공간과 같은 영역이라고 하였다. 그의 생활공간이란 개념은 공간적으로 보다는 오히려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하는 시간적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개인이 살고 있는 사회적 환경이 시간전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계획이나 목표의 실현과 같은 인간의 업적이 시간 체험 및 구조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Wallace(1956)는 시간전망을 “시간적 차원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개인적인 사건들의 순서를 정하고 시간적 배치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이는 개인의 전체적인 성격과 과거사건의 기억, 미래사건에 대한 기대, 포부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그는 시간전망에 범위, 응집성, 방향의 세 측면이 포함된다고 보았는데 이때 범위란 미래사건의 시간적 길이이고, 응집성이란 미래사건의 합리적 조직정도를 말하며, 방향이란 시간전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낸다.

김경희(1981)는 시간전망을 “시간체험의 차원으로서 과거와 미래로 향해있고 인간행동에 작용하는 심리적 변인”으로 정의하고, 거리, 방향(정서적인 면), 구조의 세 가지 측면으로 기술될 수 있다고 하였다.

시간전망은 다차원적 양상을 가진 심리학적 변인이기 때문에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한 측면이 다루어져 왔다. Lamm, Schmidt 와 Trommsborff(1976)는 미래전망의 영역을 양(density), 범위(extension), 비관-낙관, 내외통제로 구분하고 이러한 차원을 다시 사적생활영역과 공적생활영역으로 양분하여 연구하였으며,

Wolf와 Savickas(1985)는 시간전망은 개인의 장기 지향성과 미래목표성취가능성, 절망감, 시간효용이라는 4가지 하위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개인의 장기 지향성(The Long-Term Personal Direction)은 미래를 구조화하거나 계획하는 경향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지속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장기 목표에 대한 동기와 의무를 말하는데 이러한 개인의 장기 지향성은 시간의 연속성에 기초한 미래에 대한 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목표성취가능성(Achievability of Future Goals)과 절망감(Hopelessness)은 미래에 대한 감정적 평가로 낙관적인 면과 비관적인 면을 뜻하며, 시간효용(Time Utilization)이란 미래의 목표달성을 위해 현재의 시간 사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는가를 뜻하는 영역으로 계획과 조직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간전망에 대한 정의가 학자마다 다르지만 각각의 정의에서 시간전망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연속성 상에서 파악되는 개념이라는 점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전망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차원에 대한 개인의 인식”으로 본다.

지금까지 시간전망을 연구한 방법들을 보면 투사법, 문장완성법, 질문지법, 관찰법, 면접법 및 작문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어 왔다(김경희, 1981). 가정학 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시간전망을 연구한 Blinn과 Schwarz(1987)가 제안한 바와 같이 개별적인 방법들의 단순한 종합보다는 다방법 접근법(multimethod approach)이 시간전망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시간전망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소수 찾을 수 있을 뿐인데, 이제까지 이루어진 실증연구들(김경희, 1981a; 엄판도, 1987; 정종민, 1987)이 모두 질문지를 사용하여 시간전망을 측정하고 있다. 김경희(1981)는 남녀 대학생의 시간전망에 대한 태도가 성별, 학년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으며, 정종민(1987)은 미래시간전망을 학습적 요인과 비학습적 요인으로 나누고 학습적 요인에는 학업성취 기대 전망, 상급학교 진학 전망, 사제 및 학우관계 전망 등이, 비학습적 요인에는 미래전망 길이, 미래 관심도, 미래 낙관도 등이 포함된다고 보고 아동의 미래시간전망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조사하였다. 엄판도(1987)는 시간전망의 여러 차원 중에서 범위(extension)만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공무원의 행정이념표출양태와 시간전망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2. 시간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시간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어느 한가지라고 단정적으로 단하기는 곤란하며,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시간전망은 국가, 가족 및 개인의 다양한 특성-성별, 연령과 같은 인구사회적 특성과 학업성취, 원망격차, 자아정체감, 성취동기, 성격요인 등 심리적 특성-에 의해 변화가능하다는 것을 시사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의의 문화로서 국가, 가족환경으로서 사회경제적 지위, 개인의 특성으로 성별을 각각 선정하여 이들이 시간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국가

시간개념이 우리의 삶과 사고방식을 어떻게 자배했는가를 역사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시간에 대한 의식이 진화해 온 과정을 밝힌 Witrow(1988)는 각 문화에는 상이한 시간개념이 있고, 그 상이한 시간개념이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행동과 언어 체계를 결정짓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방식을 연구한 Collett(1997)도 시간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밝히고 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영국인은 먼 과거와 최근의 과거에 매우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또한 현재에 몰두하며 약간 연장하여 가까운 미래에 몰두하나 먼 미래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시간개념이 국민총생산 중에서 아주 작은 비율만이 기초과학 연구에 할당되고, 미래를 위한 안전한 기초공사보다는 자금회전이 더 빠른 사업에 몰두하게 한다. 반면 미국인들은 현재와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눈을 돌리는 경향이 강하다. 한편 독일인은 시간방향에 있어 일본인과 거의 흡사하여 미래에 대한 아주 넓은 시야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교육, 훈련과 기초 학문 연구를 매우 강조하며, 자금회수 기간이 짧은 사업보다는 장기간을 두고 회수하는 사업에 더 많이 투자한다고 한다.

각 나라의 전통에 따라 다양한 시간문화가 존재한다는 점을 밝힌 Levin(1997)도 사람들이 걷는 속도, 우체국에서의 일처리 속도, 공공장소에 있는 시계들의 정확성을 통해서 31개국의 삶의 속도를 측정하여 국가별로 다른 시간의식을 밝힌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삶의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스위스이고 가장 느린 곳은 멕시코이며, 우리나라에는 18위이다.

Lewin(1942)은 개인이 살고 있는 사회적 환경이 시간전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높은 가치가 원하는 대로 얻어지는 상황에서는 보다 미래지향적이 되고, 쉽게 얻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현재지향적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제주의사회에서는 개인의 미래가 지도자에 의해 결정되고 구성되어지므로 현재지향적이 되고, 민주주의사회에서는 개인과 집단의 계획을 결정하는데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미래지향적이 된다.

한편 현재 시제로 기록된 4개의 주제를 제시하고, 그 다음 내용을 스스로 전개하도록 한 후 그 내용이 기본적으로 과거지향적인지, 현재지향적인지, 혹은 미래지향적인지를 구분해 모든 내용을 점수화하는 방법으로 시간전망을 측정하여 미국과 인도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문화적 배경이 시간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Meade(1971, 1972)는 1971년, 1972년 두 해에 걸친 비교연구에서 두 연구 모두에서 인도 대학생들보다 미국의 대학생들이 미래의 계획이나 미래 사건 중심으로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대학생들이 인도의 대

학생들보다 이야기를 전개할 때 노력과 같은 성취 동기를 보다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Meade는 성취 동기가 상대적으로 낮은 문화권보다는 높은 문화권에서 좀 더 장기적인 미래시간전망을 보인다고 결론짓고 있다. Heckel과 Rajagopal(1975)도 인도대학생과 미국대학생의 미래전망을 비교하였는데 미국대학생이 인도대학생보다 미래전망의 범위가 긴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인도와 미국 학생들의 미래시간전망을 비교한 Mehta 등(1972)은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인도는 윤회 설이 지배적이고 인도인들은 삶에 대해 보다 느긋한 태도를 보이므로 개인의 시간전망이 미국보다 더 폭이 넓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여기서 시간전망은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7개의 사건과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의 경과시간을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그 결과 예상되는 7개의 사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두 나라간 차이가 발견되었지만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의 경과시간 평균을 이용한 시간전망 점수에서는 인도 학생과 미국 학생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사회에서 미국인은 다른 유럽인에 비하여 짧은 시간전망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짧은 역사가 필연케 한 과거시간관 때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인의 미래에 대한 시간성향은 미국인보다도 더 짧다고 한다(이나미, 1994). 역사의 길이로 본다면 미국과는 비교할 수도 없게 길지만, 근세에 경험한 급변의 역사 속에서 조급한 문화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규태(1983)는 20세기의 큰 변화만을 보더라도 일제통치, 해방, 육이오전쟁, 군사쿠테타, 올림픽, 민주화라는 역사의 격류를 타고 왔고, 이러한 격류 속에서 개인의 계획은 유명무실해지고 계획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것을 먼저 차지해야 하는 선점의식으로부터 조급함이라는 문화를 만들지 않을 수 없는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조급함으로 대변되는 한국인의 시간성향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키는 창조적 추진력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체로 계획성이 부족하며, 조령모개식의 기분에 너무 치우치고, 무질서의식의 대명사로 표현되는 교통문화와 무계획적인 생활관에서 비롯되는 허례의식과 견전한 오락문화의 빈곤 등 수많은 사회현상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유성은, 1994).

문화적 차이에 대한 서양적 관점을 비판하며 동양적 관점에서 문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중국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개발된 도구의 하나인 장기/단기 지향성(Chinese Culture Connection, 1987)의 개념은 한국과 같은 동양은 장기지향적인 문화를 가진 것으로, 미국은 단기지향적 문화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문화가 시간전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우리 나라 국민의 시간전망이 다른 문화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추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2) 성별

미래시간전망의 영역을 양, 범위, 비관-낙관, 내외통제로 구분하여 공적, 사적 생활영역으로 다시 양분하여 성별과 사회계층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Lamm 등(1976)은 미래시간전망 양의 경우 사적인 영역에서는 사회계층의 구별없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많은 미래전망의 양을 보였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하층 계급의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많은 미래전망의 양을 보였다. 또 미래시간전망의 범위에서도 공사영역 모두에서 하층계급의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미래전망의 범위가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통제영역에서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사적인 생활에서 내적 통제하였다.

노르웨이의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시간지향을 연구한 Gjesme(1979)의 연구결과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미래지향점수가 높은 이유를 여학생의 경우 타고난 점과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감수성이 높은 경향이 있고 그 감수성이 현재가 아닌 미래의 시간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더 큰 능력을 갖추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임성문(1979), 임승렬(1984) 등도 미래시간전망에 성차가 있음을 밝혔으며, 정종민(1987)의 연구에서도 미래시간전망의 하위 영역 중 미래전망 길이에서 남녀 아동간 차이가 나타났다. 즉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 남학생은 너무 길거나 너무 짧게 전망하는데 비해 여학생은 현실적으로 적절하게 전망함을 볼 수 있다.

미래에 일어날 7가지 사건에 대한 태도로 미래시간전망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Christiansen의 '시간전망에 대한 태도 척도'를 사용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 차이를 분석한 김경희(1981)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대학생은 성별에 따라 미래 시간전망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Christiansen의 척도는 미래 사건에 대한 낙관적/비관적 태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까운 미래의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는 더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불행을 예상하는 데에는 더욱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양면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덜 계획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Wolf와 Savickas(1985)의 연구에서는 시간전망의 4가지 하위 영역-개인의 장기 지향성, 미래목표 성취가능성, 절망감, 시간효용- 모두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Mehta 등(1972)의 연구에서도 인도와 미국 학생 모두에서 성별에 따라 시간전망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간전망과 성차에 관하여 아직 일관된 결론을 맺을 수 없는 상태이다.

3) 사회경제적 지위

LeShan(1952)은 8-10세 아동을 대상으로 이야기의 시간간격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시간전망의 범위와 방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 중류계급의 아동들이 하류계급 아동들보다 시간전망의 범위가 긴 것을 발견했다. 또한 부모들이 자신의 아동들에게 주는 상별⁵ 방법과 관련하여 시간전망을 조사한 결과 중류계급 아동들은 미래지향적이고 하류계급 아동들은 현재지향적인 것으로 볼⁶었는데 이는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관심이 그들의 행동을 많이 지도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Wallace와 Rabin(1960)의 연구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보다 미래 지향적이고, 계획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Marko & Savickas, 1998에서 재인용), 인도와 미국 대학생의 시간전망을 비교한 Mehta 등(1972)의 연구에서도 상위 계층의 남녀학생이 하위 계층의 남녀학생보다 더욱 장기적인 시간전망을 보여 사회경제적 지위가 시간전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Lamm 등(1976)은 미래전망의 양은 중산층 피험자들이 하류층 피험자들보다 공적 생활영역에서는 더 많았고 사적 생활영역에서는 더 적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미래전망의 범위는 중산층 피험자들이 하류층보다 공사생활영역 모두에서 길었으며, 미래시간전망의 비관-낙관 영역에서는 중산층 피험자들이 하류층 피험자들보다 공적 생활에서 더 낙관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전망이 사회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Lessing(1972)도 시간전망의 길이가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다고 보고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미래시간전망이 길다고 하였다.

Freire, Gorman와 Wessman(1980)도 사회계급과 시간체험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하류계급 아동들과 중류계급 아동들은 미래시간길이와 만족연기능력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현재와 관련된 표현을 많이 하고 즉각적인 보상을 얻으려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LeShan과 같은 이야기방법으로 시간지향의 계층 차이를 분석한 Kendall과 Sibley(1970)는 중류계급 아동들의 시간전망의 범위가 긴 것은 이야기의 길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히며, 시간전망이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LeShan의 연구결과를 반박하였다. 즉 중류계층 아동들의 시간전망 범위가 긴 것은 이들의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뿐 시간전망 범위 자체가 계층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시간전망이 계층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대학생의 경우 가족의 사회경계적 지위가 시간전망에 어떠한 차이를 보일지, 또 그 차이가 국가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 대학생의 시간전망을 비교하고,

성별 및 사회적 지위에 따라 시간전망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밝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한국과 미국 대학생의 시간전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한국과 미국 대학생의 시간전망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한국과 미국 대학생의 시간전망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는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문지는 시간전망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및 일반사항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한글로 질문지를 완성한 후 이를 영역하여 미국인 교수로부터 사독을 받고, 예비조사를 통하여 양국의 질문지를 정교화하였다.

시간전망척도로는 Wolf와 Savickas(1985), Marko와 Savickas(1998) 등이 미래 지향적 시간전망을 측정하는데 사용한 척도의 하위 영역 중 하나인 개인의 장기 지향성 척도(The Long-Term Personal Direction Scale; LTPDS)를 사용하였다.

개인의 장기 지향성 척도는 총20문항으로서 미래를 구조화하거나 계획하는 경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긍정적 문항과 부정적 문항을 각각 10문항씩을 포함하고 있다. 긍정적인 문항은 과거, 현재, 미래의 지속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장기 목표에 대한 동기와 의무를 반영하는 반면 부정적인 문항은 목표나 방향이 부재한 상태에서의 단편적인 시간 개념을 반영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7점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므로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미래를 구조화하거나 계획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값으로 측정된 척도의 신뢰도는 한글 및 영문의 척도가 각각 .73과 .85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을 보였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대상은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들이다. 아동발달분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시간전망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개념의 획득에서 비롯되며 따라서 시간전망도 연령에 따라 발달한다. 아동후기에 이르면 어느 정도 시간개념이 확립되므로 이 시기의 아동들은 시간전망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정종민, 1987),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간전망이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김경희, 1981)에서 그 시기 이전에 시간전망이 어느 정도 확립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간발달적 측면 및 연구의 편이성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하였다. 미국의 경우 오하이오주가 미국인구의 대표성을 가진 점이 인정되어 다양한 사회조사의 표본이 된다는 점 및 조사의 용의성을 고려하여 오하이오주립대학을, 한국의 경우 다양한 학생을 포함하기 위하여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숙명여

자대학교, 전남대학교를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2단계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2002년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사도구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여 본조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본조사는 2002년 11월 18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 45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전공 및 학년을 고려하여 수강생을 중심으로 강의담당교수 및 강사가 질문지를 배부하고 학생들이 기입한 후 수거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된 자료 중 부실하게 기재된 자료를 제외하고 한국학생 381명, 미국학생 385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4.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시간전망의 일반적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사용하였으며, 관련변인에 따른 시간전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원분산분석 후 집단간 추후분석을 위해 서는 Duncan 검증을 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이러한 자료 분석에는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한국과 미국의 조사대상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성별을 보면 한국은 여학생의 비율이 74.5%로 약 3/4이고, 미국은 남녀의 비율이 각각 45.2%와 54.8%로 한국에 비하여 남녀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학년은 한국의 경우 2학년, 3학년이 각각 34.7%와 33.2%로 주를 이룬데 비하여 미국의 경우는 3학년, 4학년이 각각 26.8%, 56.3%로 조사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제1전공을 기준으로 전공분야를 살펴보면, 한국 대학생의 경우에는 가정관리·소비자, 의류, 식품영양, 기타 학문 분야가 고른 분포를 보인 반면 미국 대학생의 경우에는 가정관리·소비자(50.2%)와 의류학(26.8%)을 전공하는 학생의 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피조사자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조사하였는데, 한국 대학생들은 중중계층이라고 인식한 비율이 54.4%로 가장 많았고, '중상 이상'과 '중하 이하'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미국 대학생들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상 이상'으로 인식한 비율이 52.4%로 가장 많고, '중하 이하'는 7.4%로 그 비율이 매우 적어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중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변수 | 집단 | 한국 (n=381)* | | 미국 (n=385)* | |
|-------------|----------|----------------|------|----------------|------|
| |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 성별 | 남 | 97 | 25.5 | 174 | 45.2 |
| | 여 | 284 | 74.5 | 211 | 54.8 |
| 학년 | 1학년 | 42 | 11.1 | 7 | 1.8 |
| | 2학년 | 132 | 34.7 | 58 | 15.1 |
| | 3학년 | 126 | 33.2 | 103 | 26.8 |
| | 4학년 | 80 | 21.1 | 216 | 56.3 |
| 전공 | 가정관리·소비자 | 87 | 23.0 | 190 | 50.2 |
| | 의류 | 93 | 24.6 | 101 | 26.8 |
| | 식품영양** | 75 | 19.8 | 43 | 11.4 |
| | 기타 | 123 | 32.5 | 44 | 11.6 |
| 사회경제적 지위 | 중상이상 | 88 | 23.2 | 199 | 52.4 |
| | 중중 | 206 | 54.4 | 153 | 40.3 |
| | 중하이하 | 85 | 22.4 | 28 | 7.4 |
| 주거지 | 자취 | 68 | 17.8 | 256 | 67.4 |
| | 기숙사 | 17 | 4.5 | 21 | 5.5 |
| | 부모집 | 276 | 72.4 | 40 | 10.5 |
| | 기타 | 20 | 5.2 | 63 | 16.6 |

* 무응답으로 인해 변수별 합계에 차이가 나타남.

** Hospitality Management 포함

현재 거주하는 주거형태를 보면 한국 대학생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72.4%로 가장 높은 반면 미국 대학생은 자취하는 비율이 67.4%로 가장 높았다.

IV. 분석 결과

1. 한국과 미국 대학생의 시간전망의 차이

시간전망을 개인의 장기지향성 점수를 통하여 비교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한국과 미국 대학생의 평균점수는 각각 4.55와 4.99로서 미국 대학생이 더 장기적인 시간전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t-test 결과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국과 인도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문화적 배경이 시간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Meade(1971, 1972), Heckel과 Rajagopal(1975) 등의 연구에서 미국 대학생들이 인도대학생보다 미래전망의 범위가 긴 점과 유사한 면이 있다. 삶에 대하여 느긋한 태도를 보이는 사회보다는 성취 동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문화권에서 좀 더 장기적인 미래시간전망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살고 있는 사회적 환경이 시간전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Lewin(1942)의 해석대로라면 대학생에게 있어서 미국의 경우가 한국에 비하여 자신이 원하는 가치가 보다 쉽게 얻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개인

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스스로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2. 성별에 따른 한미 대학생의 시간전망의 차이

대학생의 시간전망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우 남녀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데 반하여 미국 대학생의 경우 성별에 따라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미국의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더 장기적인 시간전망을 가지며, 한국 여학생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지만 남학생보다 오히려 단기적인 시간전망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시간전망에 대한 성별의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던 선행연구결과가 각각 의미있음을 나타낸다. 미국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시간전망 점수가 높은 점은 노르웨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Gjesme, 1979)와 일치하며, 인도와 미국 학생 모두에서 성별에 따라 시간전망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Mehta 등(1972)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남녀 학생 사이에 시간전망의 차이가 나타

나지 않은 점은 시간전망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성별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Wolf와 Savickas(1985)의 연구결과와 인도 및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Mehta 등(1972)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남녀 학생에게 기회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환경에서 여학생의 높은 감수성이 시간전망을 장기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고, 우리나라의 경우 여학생의 높은 감수성이 영향을 미치는 점보다는 여학생에게 제한된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환경 때문에 여학생의 시간전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날 수 없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나 선행연구결과의 불일치를 고려할 때 앞으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표 3> 성별에 따른 시간전망의 차이

| | 한국(n=381) | | 미국(n=385)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남 | 4.59 | .65 | 4.90 | .70 |
| 여 | 4.54 | .58 | 5.06 | .72 |
| t | | .73 | | -.21* |

* $p < .05$

<표 2> 한국과 미국 대학생의 시간전망의 차이

| 문항 | 한국(n=381) | | 미국(n=385) | | 평균차이 (미국-한국)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 나는 미리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 차례대로 움직인다. | 4.65 | 1.15 | 4.79 | 1.30 | 0.14 |
| 나는 판에 박힌 생활에 빠져서 해어 나을 수 없다.* | 4.34 | 1.57 | 4.85 | 1.65 | 0.51 |
| 나는 내가 누구이며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다. | 4.47 | 1.38 | 5.10 | 1.27 | 0.63 |
| 나는 미래가 나를 빨아들이는 빈 공간이라고 느낀다.* | 4.19 | 1.51 | 5.95 | 1.31 | 1.76 |
| 나는 삶이 연속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 5.43 | 1.16 | 5.22 | 1.08 | -0.21 |
| 나는 스스로 원해서라기보다는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 4.16 | 1.62 | 5.16 | 1.61 | 1.00 |
| 나는 몇 가지 중요한 목표를 중심으로 삶을 계획한다. | 5.27 | 1.15 | 5.18 | 1.31 | -0.09 |
| 나는 삶이 고정되었다 움직이고, 또 다시 고정되는 시작과 끝의 연속이라고 느낀다.* | 3.77 | 1.53 | 4.70 | 1.77 | 0.93 |
| 내 미래는 잘 계획되어 있다. | 4.30 | 1.29 | 4.50 | 1.42 | 0.2 |
| 내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 4.69 | 2.07 | 3.70 | 1.56 | -0.99 |
| 나는 한 해와 그 다음 해가 연속적이라고 느낀다. | 4.94 | 1.41 | 4.91 | 1.09 | -0.03 |
| 나는 장기간에 걸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 3.40 | 2.09 | 4.90 | 1.54 | 1.5 |
| 나는 삶이 끊이지 않는 실과 같다고 느낀다. | 4.94 | 1.29 | 4.24 | 1.28 | -0.7 |
| 나는 삶에 아무런 형태나 이유가 없다고 느낀다.* | 5.07 | 1.56 | 5.59 | 1.51 | 0.52 |
| 나는 도달하는데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리는 목표를 세운다. | 4.19 | 1.57 | 4.87 | 1.54 | 0.68 |
| 나는 미래가 공허하고 어둡다고 생각한다.* | 5.51 | 1.37 | 6.33 | 1.10 | 0.82 |
|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참을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느낀다. | 5.03 | 1.20 | 5.14 | 1.17 | 0.11 |
| 나는 미래를 무시한 채, 일이 진행되는 대로 받아들인다.* | 4.86 | 1.33 | 4.38 | 1.54 | -0.48 |
| 나는 미래의 삶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 상상해 보려고 노력한다. | 5.72 | 1.06 | 4.88 | 1.52 | -0.84 |
| 나는 시간이 비연속적이고, 방향성이 없는 것처럼 느낀다.* | 5.17 | 1.31 | 5.44 | 1.39 | 0.27 |
| 합계 | 4.55 | .60 | 4.99 | .57 | 0.44 |
| t | | | -9.32*** | | |

* 역점수화한 문항들

*** $p < .001$

3.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한미 대학생의 시간전망의 차이

대학생 본인이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대학생의 시간전망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일원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한국 대학생의 경우 성별 차이와 마찬가지로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반하여 미국 대학생은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집단간 차이를 보인 미국의 경우 각 집단 사이의 차이를 다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중중 집단과 중상 이상 집단 사이에는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밝혀지지 않았고, 이들 두 집단과 중하 이하 집단 사이에는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미국 대학생의 경우 중중 이상과 중하 이하의 계층은 시간전망에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 4>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시간전망의 차이

| | 한국(n=381) | | | 미국(n=385) | | |
|-------|-----------|------|-----|-----------|--------|-----|
| | 평균 | 표준편차 | DMR | 평균 | 표준편차 | DMR |
| 중상 이상 | 4.61 | .66 | a | 5.01 | .70 | b |
| 중중 | 4.53 | .56 | a | 5.03 | .69 | b |
| 중하 이하 | 4.54 | .60 | a | 4.60 | .84 | a |
| F | | .52 | | | 4.73** | |

** $p < .01$

미국 대학생의 시간전망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점은 시간전망이 계층에 따라 다르다는 다수의 선행연구결과(LeShan, 1952; Wallace & Rabin, 1960; Mehta et al., 1972; Lamm, Schmidt & Trommsborff, 1976; Friere et al., 1980)와 일치하는 것이고 한국 대학생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은 점은 Kendall과 Sibley(197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두 국가에 있어서 대학생이 속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학생의 시간전망에 차이를 보이거나 보이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추후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V. 결 론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의 장기지향성 척도를 사용하여 시간전망이 국가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각국 내에서는 성별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가 어떠한지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한국과 미국 대학생 사이에는 시간전망이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미국 학생들이 한국 학생보다 장기적인 시간전망을 보이는 것을 밝혔다. 성별 및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도 양국에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 한국 대학생의 경우에는 이들 두 변수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미국 대학생에게서는 두 변수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국 대학생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장기지향성 점수가 높았고, 주관적으로 측정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중 이상인 집단이 중하 이하의 집단보다 더 장기지향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성별 및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국 대학생의 시간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달리 한국 대학생의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한국과 미국 대학생 사이에는 시간전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양국의 차이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고 행동선택이 자유로운 사회일수록 개인의 장기지향성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각국의 사회적 환경이 개인의 시간전망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각국 대학생의 시간전망에 성별 및 사회적 지위의 영향이 다른 점에 대해서는 추후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시간전망이 인간 행동의 기저로 작용하며 특히 가족자원관리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본 연구 결과가 한미 양국 대학생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를 찾을 수 있다. 앞으로 시간전망의 하위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연구뿐 아니라 질문지 조사를 통한 방법 이외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한 시간전망연구, 시간전망과 가족자원관리행동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나아가 시간 전망에 대한 교육이 미래 지향성과 계획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간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간전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장기전망이 가능하고 개인의 행동선택이 자율적인 사회일수록 시간전망이 더 장기적이라는 점에서 보다 자율적인 사회환경을 육성하는 사회조직과 운영원리를 개발할 필요성도 크다고 본다.

- 접 수 일 : 2003년 05월 15일
- 심 사 일 : 2003년 05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3년 07월 30일

【참 고 문 헌】

- 김경희(1981). 대학생의 시간 전망의 태도에 관한 일연구. 고려대학교 행정과학연구, 55-64.
 —————(1982). 4세부터 8세 아동의 시간개념에 관한 실험적 연구. 빼앗아제연구, 서울대출판부.
 김봉식(1979).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태도와 자녀의 장래전망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성애(1982). 여대생의 장래지향성에 관한 일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외숙·이기춘(1988). 시간사용연구에 관한 분석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6(3), 171-187.
 김외숙·조희금·두경자(2000). 시간의 사용과 관리. 서울: 교문사.
 김재은(1987).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유성은(1994). 리더는 시간을 이렇게 쓴다. 서울: 21세기북스.
- 이기영·이연숙·김외숙·조희금(1996). 한일양국간 도시부부의 생활시간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145-161.
- 이연숙·이기영·김외숙·조희금·주인숙·Zick,C.D.·Lee, Y.G.(2002). 한·미 양국간 가족의 시간사용 비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3), 139-156.
- 엄판도(1987). 우리나라 공무원의 행정이념표출양태 및 시간전망과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규티(1983). *한국인의 의식구조 3*. 서울: 신원문화사.
- 이나모(1994). 주부의 시간지각 및 시간성향에 따른 시간관리행동과 가정생활만족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성문(1979). 미래시간전망에 관한 일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승율(1984). 청소년의 장래전망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종민(1987). 아동의 미래시간전망에 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linn, L. & Schwartz, M.(1987). Future time perspective : A multi-method study of how home economics students picture their lives in the future. *Journal of Vocational Home Economics Education*, 6(1), 1-17.
- Borsato, G.N.(2001). *Time perspective, academic motivation, and procrastination*. A thesis of San Jose State University.
- Chinese Culture Connection(1987). Chinese values and the search for culture-free dimension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8(June), 143-164. Recited in Moon, Y.S. & Franke, G.R.(2000). Cultural influences on agency practitioners' ethical perceptions: A comparison of Korea and the U.S. *Journal of Advertising*, 29(1), 51-65.
- Collett P.(1993). *Foreign Bodies*. 이윤식(역)(1997). 습관을 알면 문화가 보인다. 서울: 청림출판.
- Dreman, S.(1989). Competence or dissonance? Divorcing Mothers' perceptions of sense of competence and time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2), 405-15.
- Fingerman, K.L & Perlmutter, M.(1995). Future time perspective and life events across adulthood. *The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122, 95-
- Frank, L.K.(1939). Time perspective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 293-312. 김경희(1981) 재인용.
- Freire, E., Gorman, B. & Wessman, A.E.(1980). Temporal span, delay of gratification, and children's socioeconomic statu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37, 247-255.
- Gjesme, T.(1979). Future time orientation as a function of achievement motives, ability, delay of gratification, and sex. *The Journal of Psychology*, 101, 173-188.
- Graham, R.J.(1981). The role of perception of time in consumer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7(4), 335-342.
- Heckel, R.V. & Rajagopal, J.(1975). Future time perspective in Indian and 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85, 131-132.
- Kastenbaum, R.(1961). The dimension of future time perspective, An experimental analysis. *The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65, 203-218.
- Kendall, M.B. & Sibley, R.F.(1970). Social class difference in time orientation: Artifact?.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82, 187-191.
- Lamm, H., Schmidt, R.W., & Trommsdorff, G.(1976). Sex and social class as determinants of future orientation in adolesc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 317-326.
- Lennings, C.J., Burns, A.M. & Cooney, G.(1998). Profiles of time perspective and personality : Developmental considerations. *The Journal of Psychology*, 132, 629-641.
- Leshan L.L.(1952). Time orientation and social clas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7, 589-592.
- Lessing, E.E.(1972). Extension of Personal Future Time Perspective, age, and Life-Satisfa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gy*, 6(3), 457-468.
- Levin, R.(1997). *A geography of time*. 이상돈(역)(2000). 시간은 어떻게 인간을 지배하는가. 서울: 횡금가지.
- Lewin, K.(1942). "Time perspective and morale." In Watson, G. (ed.). *Civilian Morale*. Boston: Houghton Mifflin, 48-70. 정종민(1987) 재인용.
- Marko, K.W. & Savickas M.L.(1998). Effectiveness of a career time perspective interven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2(1), 106-119.
- Meade, R.D.(1971). Future time perspectives of college students in America and in India.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83(2), 175-182.
- _____(1972). Future time perspectives of Americans and subcultures in India.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1), 93-99.
- Mehta, P.H., Rohila, P.K., Sundberg, N.D. & Tyler, L.E.(1972). Future time perspectives of adolescents in India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 293-302.
- Mudrack, P.E.(1997). The structure of perceptions of tim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7(2), 222-240.
- Nir, A.E.(1999). Time perspective of strategic planning processes and plans as a function of gender and echelon. *Sex Roles*, New York, 41, 737-752.
- Nuttin, J.R.(1964). The future time perspective in human motivation and learning. *Acta Psychologica*, 23, 60-82.
- Ouellette, F.(1987). Time perspective on nursing students and its relationship to nursing care planning. *Proceedings for the 5th Annual Research in Nursing Education Conference*.
- Peetsma, T.T.D.(2000). Future time perspective as a predictor of social investment. *Scandinavian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44(2), 177-92.
- Ringle, P.M. & Savickas, M.L.(1983). Administrative Leadership Planning and Time Perspectiv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54(6), 649-661.
- Shannon, L.(1975). Development of time perspective in three cultural groups: A cultural difference or an expectancy interpret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1(1), 114-115.
- Shannon, L.(1976). Age change in time perception in native Americans, Mexican Americans, and Anglo-American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7(1),
- Shifflett, P.A.(1987). Future time perspective, past experiences, and negotiation of food use patterns among the aged. *Gerontologist*, 27(5), 611-15.

Wallace, M.(1956). Future time perspective in schizophrenia.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2, 240-245. 정종민(1987) 재 인용.

Whitrow, G. J.(1988). *Time in History*. 이종인(역)(1999). 시간의 문화 사. 서울: 영림카디널.

Wolf, F.M. & Savickas, M.L.(1985). Time perspective and causal attributions for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7(4), 471-480.